

“ 영화를 보고 느끼 점이나 인상 표은 장면이나
대사를 골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 영화 보고 나누기

1.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프레드 로저스 아저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함께 나눠보세요.

2. 용서할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 영화에서처럼 "자신이나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감정을 다스리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세요. 혹은 없다면, 앞으로 나는 어떤 방식으로 분노와 슬픔의 감정을 해결해나가고 싶은지 그 '다짐'을 나눠주세요.

“ 말씀과 함께 나누기

15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16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하지 마십시오.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로마서 12:15-18, 새번역)

1. 프레드 로저스 아저씨가 로이드 기자에게 말 걸어주고, 그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위로했듯이 지금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다가가 함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생각이 안 난다면, 만약 내가 로이드를 만난다면 그에게 무엇이라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싶은지 나눠주세요)

2. 영화는 '겉모습만 성숙한 어른'이 아닌, 자신의 상처를 잘 다룰 줄 아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나는 어떤 어른,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지 적어보고, 함께 나눠주세요.

“어떤 영화예요?”

이 영화는 미국의 대표 어린이 프로그램인 <로저스 아저씨네 동네(Mister Roger's Neighborhood)>의 진행자이자, 장로교 목사님인 '프레드 로저스(Fred Rogers)'라는 실존 인물을 다루서 더 화제가 되었는데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로이드'는 베테랑 매거진 기자로서 일에서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지만, 어린 시절 가족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로 인해 여전히 어린 시절의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인물이에요. 어느 날 로이드는 인터뷰 일 때문에 로저스 아저씨를 만나게 되지만, 국민적 영웅이자 친절한 신사인 로저스의 삶에도 분명 '이중성'이 있을 거라고 여기며, 끊임없는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대하게 되죠. 하지만 이내 로저스 아저씨의 삶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자신의 상처 깊은 곳을 용기 있게 마주하게 되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동안 분노로 소중한 가족들에게 상처 주었던 것도 용서받게 되어요.

“영화이해를 위한 꿀TIP!”

프레드 로저스는 처음부터 방송인이거나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대학 4학년 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막 끼치기 시작한 TV라는 매체 속 한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 프로그램에서 상대방의 얼굴에 파이를 집어 던지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해요. 로저스는 그때의 경험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며, 동시에 그런 매체의 '선한 영향력의 필요성'을 느껴서 방송국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후 신학과 상담, 아동발달에 관한 공부를 했으며 1968년부터 2001년까지 공영방송에서 로저스만의 독특한 신념으로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했어요. 그는 아이는 아이의 삶이 있고 어른은 어른의 삶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린이 프로그램처럼 세상의 밝은 면만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죠. 어린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4개월 뒤에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인형 캐릭터 '대니얼'의 대사를 통해 "암살이 뭐니?"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그밖에도 이혼, 전쟁, 인종 차별, 죽음, 9·11테러 등 다른 어린이 프로그램이 다루지 않는 주제도 다루며 어린이에게도 세상의 일원으로서 그들 눈높이에 맞는 진실을 알려주려고 애썼어요. 로저스에게 있어 방송은 단순히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유희적 차원이 아닌, 혼탁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매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발행 문화선교연구원

집필 및 디자인 문화선교연구원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27(대신동, 하늬슬빌딩A) B1 필름포럼

문의 02-743-2535, www.cricum.org



영화 <뷰티풀 데이 인 더 네이버 후드> 무비특가이드 vol.41

"내 이웃이 되어줄래요?"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돌아본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문화선교연구원+필름포럼+서울국제사랑영화제